

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편집실

1.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미국의 경우 입학은 일반 학생선발(general admission)과 선택적 학생선발(selective admission)로 대별되어 있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대학 자율권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기여입학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선택적 선발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선택적 선발과 관련한 학생선발의 경우에는 대개 일반전형에서 중요시하는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하고 있지만, 특별전형에 관련한 요인이 입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선택적 선발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예컨대 인종, 지역, 경제적 요인, 문화·정치적 요인 등에 따라 비정규적·예외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선택적 선발의 유형을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 ① 지역사회나 대학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
- ② 농촌 고등학교 등록자
- ③ 특별한 자질이나 특기자
- ④ 비정규 고등학교 등록자(non-traditional high school enrollment)
- ⑤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
- ⑥ 신체·정신 등의 장애인
- ⑦ 재입학에 해당되는 지원자

* 이 글은 『대학의 기여입학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91-19-115, 1992. 4)의 제4장 “외국 대학의 입시제도와 기여입학” 내용을 편집실에서 발췌·요약한 것임.

- ⑧ 체육 특기자
- ⑨ 인종적 배경
- ⑩ 성취와 명예

여기서 특히 기여입학제도와 관련된 유형은 선택적 선발 중에서도 지역사회나 대학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들에 대한 특별 고려나 사회경제적 배경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대학들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예컨대 우수 사립대학들인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퍼드, 프린스턴, 콜롬비아, 그리고 공립대학인 버클리, 뉴욕 대학 등에서 실제로 선택적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대학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따른 기여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허가는 사례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각 대학의 입학 담당부서에서 특정한 경우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각 대학 입학 요강이나 지원 선발규정에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거의 모든 대학이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사회나 대학의 기여인사, 비정규적 연구기금 출연과 연관되어 있다.

이 때 기여자들의 경우, 특정 교육목적이거나 특정 시설을 지정하여 기여하기 때문에 선택적 선발의 경우도 이와 유관한 전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예가 많지만, 반드시 기여한 학과나 대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선택적 입학제도는 이 외에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거나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경우도 인정되며, 기여입학의 논리적 근거는 대개 대학 생활에서 지적·사회적·문화적으로 특별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예측에 의존한 것이다.

실제적인 예를 제시해 보면 미국의 많은 대학들의 경우,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몇 가지 선택적 학생선

발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특정 가정배경, 예컨대 왕족이나 기업인 또는 특정 인사의 자녀에 해당되는 외국인 학생 선발이 기여입학제도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내국인 학생들의 경우로는 명문가의 자녀, 역사적으로 대학의 설립과정이나 발전과정에 기여한 인사의 자녀에 대한 예외적 취급 등도 이러한 예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입학의 경우는 무한정 혹은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면서 정원과는 무관하게 또는 일반 학생선발과는 다르게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일반 학생선발의 규정에 적용될 수 있는 학업성취 능력, 고등학교의 학과 이수내용 등과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래 들어서는 외국인 학생의 경우에 기여입학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든 기여입학의 유형은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으로, 그리고 개인의 성취요인이나 특별히 처한 예외적 상황 때문에 입학이 고려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때 선택적 선발의 대상은 다음 몇 가지로 유형이 분류될 수 있다.

- ① 특별기여자에 대한 동일 영역의 입학
- ② 연구소 중심의 기여자에 대한 다학문적 전공을 위한 입학
- ③ 대학에 대한 공로자의 기여입학
- ④ 특수 영역에 대한 편입학 기여
- ⑤ 석좌교수 기금 기여자에 대한 기여입학

이러한 기여의 횟수나 기여자의 수효는 많지 않으나, 기여금액에서는 실제적으로 커다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물론 정규적인 기여입학제에 해당할지에 대해서는 검

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Sproul 기여제도(버클리 대학)
- ② Clark Kerr 스칼라십(버클리 대학)
- ③ Brynes International Fund(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 ④ Hoover Research Fund(스탠퍼드 대학)
- ⑤ Kennedy Governmental Studies(하버드 대학)
- ⑥ Eastern Asian Studies(하버드 대학)
- ⑦ SIU Alumni Fund(남일리노이 대학)
- ⑧ Eastern Asian Studies(UCLA)

이 외에도 대학과 대학원 선발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기여와 관련된 선택적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은 물론이고, 전문대학의 경우에서도 일부 원용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여제도에 의한 기금 등과 관련하여 비정규적으로 기여입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는 대체로 묵인,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석좌교수 기여자의 자녀에 대해서 기여와 동시에 입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 유럽 대학의 기여입학제

유럽 국가들의 기여입학제도와 관련된 유형은 주로 사회경제적 신분이나 가문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을 끌고루 수용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기여입학제도와 선별적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학생선발의 기본 원칙

중의 하나로서 입학 자격요건의 보다 확대된 개념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광범위한 선발 원칙, 성별과 연령에 따른 불평등 배제 원칙, 그리고 일반대학 혹은 준 일반대학 교육(quasi universal college education)의 확대 원칙에 의거하여 학생선발을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와 같은 특별입학제도에 해당되는 선택적 선발(selective admission)은 유럽 여러 국가들의 개혁의 원칙과 부합되고 있는데, 선택적 입학제도는 대개 미국에서와 같이 다음의 몇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① 가정 배경
- ② 사회경제적 지위
- ③ 인적 요인(성별, 연령)
- ④ 특수집단의 배려
(특히 여성, 소수민족)

대개의 경우 이러한 관점이 기여입학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 빈도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기여입학제도라기보다는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이들 대상자들에 대한 입학선발은 입시전 선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대체로 미국의 고등학교 고학년의 대학 인정과목 이수자들에 대한 先入學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여입학제도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선택적 학생선발은 다음 몇 가지 관점에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첫째, 일반 학생선발의 보조적 유형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선택적 학생선발은 전통적으로 입학조건에 미달하지만, 교육 평등

의 구현을 위한 관점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예외적 입학 허용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으로 저임금이나 하류계층, 외국인 학생, 여성, 연령 초과학생, 그리고 장애학생 등에 대해서 인정해 왔던 선별적 학생선발이 동시에 대학이나 지역사회, 그리고 특정 연구영역에 기여한 인사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활용되어 왔다는 점이다.

셋째, 대학 특히 사립대학들의 경우, 재정적 압박으로 인하여 여러 형태의 기여나 후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창구를 통해 실제로 특별전형이나 기여입학제도를 인정해 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을 감안하고, 앞서 예시한 외국의 몇 가지 사례에 비추어 본다면, 기여입학제도는 교육평등의 관점에서 혹은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외국의 대학에서도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금이나 기여입학제도는 선택적 입학의 유형이 주종을 이루며, 선발대상이나 기준은 ① 지역사회 혹은 대학에 기여한 자의 자녀, ② 특수한 사회적 지위나 신분에 위치한 지원자, ③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부합된 지원자 등을 위주로 하여 행해지고 있다. 또한 선 선발방법과 기부금제도, 그리고 연구기금제나 특수 연구영역 설정 방법 등에 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일본 대학의 기여입학제

일본의 대학입학은 일반입시에 더하여 추천입학과 특별입학의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기여입학의 여지가 있다. 즉, 대학에 따라서

는 입학정원의 일부를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과 내신성적에 의해서 학력시험을 면제하고 면접, 소논문 등의 성적과 출신학교 제출자료에 의하여 대학입학을 허가하기도 한다. 이 경우 대학·학부의 목적, 특색, 전공과목 등의 특색에 따라 공통 1차 학력시험을 면제하기도 하고 응시하게 하기도 한다. 당초의 추천입학제도는 특기자 선발을 중심으로 한 전형제도였으나, 최근에는 일반계열에서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

추천입학제도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자녀 및 사회인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단계에서 합격된 자를 대상으로 면접, 소논문, 실기고사만 실시하여 입학자를 선발하는 특별전형제도가 있다. 1987년도에 귀국자녀 및 사회인을 특별선발한 대학은 각각 47개 대학 118개 학부, 19개 대학 22개 학부이며, 합격자수는 귀국 자녀가 199명, 사회인이 263명이다. 이는 우리의 해외 외교관 자녀나 해외주재 상사직원 자녀에 대한 특별입학과 비슷하다.

일본의 사립대학들은 시험 부과과목, 입학요건, 입학결정 방식 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다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학력은 필수),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입시경쟁이 치열하여 시험성적에 의한 학력이 주요한 입학 사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일본의 많은 사립대학들은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선발고사를 통한 일반선발과는 별도로 자치활동의 실적이나 다양한 자질을 평가하는 특별선발 입시를 두고 있다. 이는 고교에서의 자치적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입시이고, 아울러 입학한 학생 본인의 기술, 능력의 한층 개화와 본 대학 과외활동의 진흥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추천입학은 입학 실적이나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지정 학교로부터 일정한 기준을 만족한 자에 대하여 추천을 받아 입학할 허가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87년도의 경우 慶應大學 공학부는 전체의 25%를, 上智大學은 전체의 31.7%를 추천입학으로 입학생을 선발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활동에 우수한 자의 자기 추천제 특별선발 입시나 스포츠 능력이 우수한 자의 특별선발 입시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의 입시제도는 서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입학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법령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의한 기여 입학은 가능하며 그러한 길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균등 정신이 철저하여 입학조건부 기부금 거래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학들도 이를 자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이 절대적으로 기부금입학을 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일반계열의 학과는 대체로 기부금입학이 배제되고 있으나, 사립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거액의 입학 관련 기부금 모집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일본 문

부성이 수차례에 걸쳐 '입학시의 기부금 모집의 억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사립 의과·치과대학의 입학기부금 모집을 억제하여 줄 것을 대학에 요청한 것만 보아도 자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부성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치·의학계열의 입학기부금 모집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 요구가 권장적 성격(위반할 경우 경상비 보조금 지급 억제 등)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대를 방지하면서 묵인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심각한 사립대학 재정난 문제(치·의과대학의 경우, 최신 고가 기자재 도입 등이 현안 문제화되고 있음) 해결에 대하여 정부가 더 이상의 지원을 감당하기 곤란하며, 일본의 전통적인 가업 전수 풍습이 이에 대한 일면의 긍정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대학에 따라서는 모든 신입생에게 일률적으로 800만 엔 내지 1,000만 엔의 특별기부금을 부과(입시요강에 예고)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 대학에 시사하는 바 크다. ■